지역 소식통

고창군,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고창군이 '스탬프로 즐기는 고창여행'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탬프로 즐기는 고창여행 고창읍성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고창의 매력적인 관광명소 34곳이다. 고창읍성 투어로드, 유네스코 세계유산 투어로드, 고창관광 투어로드 등 총 3개의 테마로드로 구성돼 있다.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바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탬프투어'를 검색해 내려받아 회원 가입 후 '전북 고창군'을 선택해 참여하면 된다.

앱에 접속하면 참여자의 현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투어 대상지가 순차적으로 노출된다.

해당 관광지를 방문할 경우 진동이 울리면서 자동으로 스탬프가 화면에 떠오르는 방식이다. 테마별로 스팸프 획득을 완수하면 월별 추첨 이벤트에서 관광기념품 신청을 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우체국쇼핑몰 봄맞이 할인판매 진행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부안우체국(국장 황현중)은 우체국쇼핑몰 '부안군 브랜드관'에서 봄맞이 특별 할인판매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달 15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특별할인 판매 행사는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지역 농·축·어업인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동진수미감자, 죽염, 돼지감자차 등 39개 업체, 147개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기간 중 부안군 농특산물은 창구에서 직접 방문구매하거나 쇼핑몰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속해 할인쿠폰을 활용하면 최대 25% 할인, 구매할 수 있다.

권오범 축산유통과장은 "이번 봄맞이 특별할인 판매전을 통해, 부안군 농특산품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는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제도 확대

정읍시, 생애 최초 · 12억원 이하 주택 최대 200만원 환급

정읍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감면을 통해 미감면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에 대해 신속한 환급과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억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란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던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연소득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매할 때만 취득세의 50%(1억5,000만원 이하 100%)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이런 기준을 개편해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감면 확대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신속·정확한 환급을 위해 특례대상자로부터 감면신청서와 경정청구서를 제출받아 감면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한 후 즉시 환급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신청해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적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면요건과 환급 신청 관련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063-539-5267, 52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신속한 환급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 세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고 예방 신속한 구조 협조

부안해경, 사고 예방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성기주)는 지난 17일 3층 대회의실에서 농무기, 연안사고 등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농무기(3월~7월)에 대비해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색·구조 활동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조정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날 부안해양경찰서를 비롯해 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기상청, 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민간해양구조대 등 168개의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총 3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의 농무기 해양사고를 분석하며, 연안사고 현황을 공유하고, 연안사고 예방 및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헌곤 경비구조과장은 "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는 부안해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관계기관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며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꼼꼼 검토… 신속 처리를"

이학수 정읍시장, 각종 지원사업 · 시책 등 대상 시민에 홍보 강화… 시민 불이익 없도록

이학수 시장이 20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추진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시민 의견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수렴된 의견에 대해 관련 부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민 불편 해소와 함께 시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도시가스, 농·배수로 정비 등 생활밀착형 건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읍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이나 시책 등 지원정책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사업과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원 등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직원들의 친절도 수준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직원들 대상 민원 응대, 친절 교육 등을 통해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병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정읍사공원 오감 만족 산림 체험 운영

정읍시가 정읍사공원 일원에 조성한 나무놀이 숲 체험 시설이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전문가의 지도하에 유익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나무놀이 숲 체험 시설은 기존 놀이터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 속 휴식·힐링·놀이 공간이자 친환경 교육 시설이다.

어린이 체험객들이 숲을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만지고 보고 느끼는 등 오감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아 준다.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셋째 주 금~일요일 3일간 하루 2회씩 나무놀이 숲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요일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주말에는 개인과 가족 단위 체험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이하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사전 예약은 매월 초 위탁업체인 산소리숲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지방소멸위기 대응 전략구상 나서

고창군이 지난 16~17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구상을 위한 부서별 직원역량강화워크숍 및 부서장 면담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등 정부의 인구정책을 이해하고, 고창군 현안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사업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1일차에는 13개부서 30여명의 팀장들이 참석해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을 위한 지역활력 사업 발굴과 추진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호선 한국정책역량개발원 대표 연구위원의 지방소멸 대응 정부정책 안내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례 등이 안내됐다. 이어 사업계획 보강을 위한 개인과 팀별 워크시트를 작성 시간을 가졌다.

2일차에는 각 실국장 및 과장을 대상으로 면담활동을 추진, 지역현안 및 지역소멸에 대한 의견 등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후 군은 사업 발굴 보고회와 최종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반영하고 공모심사를 거쳐 실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2023년은 변화의 원년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활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역량강화 교육과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14개 읍 · 면 이면도로용 제설장비 배치

고창군이 올해 14개 읍·면 전체에 이면도로용 제설장비를 배치한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해마다 강도를 더해가는 폭설과 읍·면 이면도로 제설작업의 능동적인 대처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 고창군은 읍·면 소재지 규모 등을 고려해 5개 읍·면(고창, 고수, 신림, 대산, 흥덕)에 1톤 트럭용 장비를 배치해 폭설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지난 겨울, 같은 고창군 안에서도 적설량의 지역별 편차가 컸다. 특히 동시다발적인 제설민원과 마을안길과 골목길 등에는 대형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고창군은 총 1억6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4개 모든 읍·면에 1톤 트럭용 제설기와 염화칼슘 살포기를 배치하기로 했다.

고창군은 이번 겨울(2022년11월~3월) 관내 22개 노선 282㎞에 대해 주요도로 제설작업을 진행해 왔다. 제설대책 기간 중에는 덤프트럭 7대, 굴삭기 2대, 전문 제설인력 19명이 상시 대기하며 군민불편 해소에 노력했다.

/고창=김영식기자